

올 가을 축제로 물들인다

순창장류축제·세계소스박람회
20일 고추장 마을서 동시 개막
불거리·즐길거리 업그레이드
3일간 화려한 맛 잔치 '입소문'

순창군이 올해는 제12회 순창장류축제와 순창세계소스박람회를 동시 개막한다고 밝혀 어느해 보다 풍성한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장류축제와 세계소스박람회는 오는 20일 고추장민속마을 일원에서 개막해 22일까지 3일간 화려한 맛 잔치를 연다.

순창군을 테마로 한 장류축제에 세계소스의 다양한 테마를 더해 축제를 규모화 하는 것은 물론 전통 장류의 소스화를 통해 축제를 통한 산업화 가능성을 열기위해 장류축제와 세계소스박람회를 병행 추진한다.

실제 군은 이번 축제를 주민소득 엔진이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와 산업화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거리, 즐길거리, 맛 체험도 한층 강화했다.

제12회 순창장류축제는 8개 분야에서 66가지 풍성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가장 주목 받는 프로그램은 2017인분 떡볶이 오픈 파티다. 고추장 민속마을 중앙 거리 200m 정도에 떡볶이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나 참여해 신나는 음악과 함께 떡볶이를 만드는 오픈 파티형 행사다.



순창군 장류축제와 세계소스박람회가 오는 20일 고추장민속마을 일원에서 개막해 22일까지 3일간 펼쳐진다. 사진은 지난해 대형 비빔밥 행사 자료사진.

무료 행사로 21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진행 된다. 또 순창고추장을 매개로 한 임금님 고추장 진상행렬과, 고추장 떡볶이 거리 조성, 마을로 가는 여행 등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성 운영해 장류를 소재로 한 컬러 콘텐츠를 강화했다.

이외에도 우리가족 떡볶이 만들기, 꼬치와 떠나는 소스기행, 반짝반짝 메주만들기 등 가족단위 체험프로그램이 풍성하다.

또 EDM 아간 서치쇼, 장류마을 쏘미아 놀자, 밤 오케스트라 공연 등 야간 프로그램도 확대했다.

제12회 순창세계소스박람회는 고추장민속마을 발효소스도굴 일원에서 진행된다. 세계 150여개 기업이 각 나라의 독특한 소스를 전시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만든다.

신원관, 마케팅관, 전시관 3개관을 개관하고 13개국 69개사가 참여해 94

개의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북을 부르는 세계음식 소사전, 6차 산업전, 장수발상, R&D 전시전 등 전시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 완공된 미디어 아드존은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축제를 풍성하게 할 계획이다.

국내 소스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 일에도 팔을 걷어 부친다. 우선 미국 대사관, 한독상공회의소 등 해외기관에서 15명이 참여하고 호텔앤레스토랑 관련 매체와 유통바이어 등 100여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군 측은 예상하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올해장류축제는 우리 전통의 맛에 세계의 다양한 소스를 융합한 테마로 불거리 즐길거리가 한층 강화됐다"면서 "많은 분들이 장류축제에 오셔서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운봉가야, 전자책으로 재탄생

남원시 공무원 김용근씨
연구사로 바탕으로 발간



1500여 년 전 운봉고원에서 화려한 철기문화를 꽃피웠던 남원 운봉가야 기문국에 관한 이야기가 전자책으로 발간되었다.

"운봉가야 기문국, 크고 작은 이야기는 남원시 공무원이자 지리산 문화지원연구소(1인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용근씨가 오랫동안 연구한 사료를 바탕으로 만들었다.

이 책은 운봉고원의 역사 들여다 보기를 시작으로 기문국 철도령과 염공주 이야기, 두라고분군의 비밀코드, 기문국 사냥유전자 가진 모데미풀 이야기, 기문국 사람들의 잡곡식량이야기, 기문국과 말 이야기, 기문국 통치자의 모습, 기문국 주거 해집, 기문국적 감시 레이더 봉수대 이야기 등 18편으로 구성돼 있다.

저자 김용근씨는 "1500년 전 운봉고원 가야 기문국의 실체는 발

굴의 현장에 있으며 고고학자의 몫이다"고 지적하고 "이를 관광객으로 활용하는 콘텐츠의 소재인 스토리텔링은 시민의 역할이기에 오랫동안 조사했던 구전과 자료를 바탕으로 이 작업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가야문화가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남원 운봉고원가야 기문국은 후기가야로 제철지가 다양 발견되어 철의 왕국으로 크게 조명 받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재성남 임실군 향우회 박완호 회장(왼쪽)과 신동해 전 회장(가운데)이 임실군 애향장학회 이사장(심민 군수)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타향서도 잊지않은 고향사랑 '칭송'

재성남 임실군 향우회, 10여년째 장학금 기탁 이어져

고향을 사랑하는 향우회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이어져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2017 임실N치즈축제 기간 도중 재성남 임실군 향우회 박완호 회장(재)임실군 애향장학회 이사장(심민 군수)에게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성남 향우회는 10여년 동안 추석 전후 고향을 방문해 장학금을 기부하

고 있어 변함없는 고향사랑에 앞장서고 있다. 박완호 회장은 "타향에서도 고향의 후배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든든한 고향 선배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향우회원과 한마음 한뜻으로 지속적인 기부를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제55회 임실군민의 날' 재부산 향우회(회장 정철영)는 2백만원의 장학금을 애향장학회 이사장에게 전달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 게스트하우스 공모 선정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전북도에서 주관한 2018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조성 공모사업에 최근 최종선정 돼 사업비 5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남원시는 현장 심사 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과 연계한 게스트하우스 운영 방안을 제시해 경쟁 시군과 큰 점수 차이로 이번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또한 앞서 전북도 공모사업인 2017년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에도 선정되어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번 게스트하우스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 대상지와 같은 부지에 조성 될 예정이다.

남원시는 "이번 게스트 하우스 조성 공모사업 선정으로 귀농귀촌인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주택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우수'

남원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2017년 농기계임대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노후농기계 교체 사업비 2억(국비1억, 지방비1억)을 확보했다.

2017년 농기계임대사업 평가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에서 주최했으며 전국141개시군 338개소, 총 3749억원을 투자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대상으로 2016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대해 분석하고 효율성과 농업 기여도를 지표분야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았다.

남원시는 4개의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며 임대인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사철 경합기종 다양확보, 공휴일근무, 카드시스템도입, 운송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 강진면 상수도 확장 완료

임실군은 강진면 문봉리 산막마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산막 마을은 매해 가뭄으로 지하수 및 계곡수가 고갈돼 급수차로 음용수를 해결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2억여원을 투입해 지난 9월 말 0.8km 길이의 관로 매설사업을 완료해 안정적인 음용수를 공급받게 됐다.

특히 인접한 옥정마을, 수방마을, 문방마을 등에도 공급권역을 확대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수도 미 보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맞춤형 구강건강 사업 '큰 호응'

치과용 장비·전문인력 배치
구강보건센터 운영 만전
계층별 프로그램 효과 특출



순창군이 구강보건센터 운영을 통한 군민 구강건강 지키기에 나서 특목히 효과를 보고 있다.

군은 보건의료원 내 구강보건센터를 신설하고 계층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구강보건센터는 보건의료원내 119.87㎡ 규모로 구강보건 교육실, 진료실, 사업실에 치과용 유니트체어 외 43종의 장비를 갖추고 있다. 치과 의사 등 4명의 전문인력이 배치돼 운영 중이다.

군의 구강보건센터는 계층별로 맞춤

형 구강건강 사업을 진행 한다는게 특징이다.

1~3급 등록장애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70명과 장애인 시설, 결혼이민자, 지역아동센터 등 156명에 대해서는 사전예약을 통해 치과진료 및 불소도포, 스케일링, 치아홈메우기, 구강위생용품 배부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미취학 어린이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만 3~6세 어린이집 원아와 유치원생 24개소 480명에 대해 프로그 관찰체험, 구강건강관리 시스템 체험, 바니쉬도포, 불소용액 양치 등을 체험하게 해 어릴적 부터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과 구강건강 습관을 길러주고 있다.

어린이 충치예방을 위해선 초등학교 1~2학년은 우선 대상으로 15개교에 대해 치아홈메우기, 시술후 탈락여부 조사, 탈락치아 재전색 사업을 추진해 효과를 보고 있다.

구강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220명에 대해서는 구강검진 및 상담, 불소도포, 스케일링, 구강위생용품 사용법 및 올바른 잇솔질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환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권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